

레카, 정교한 3D TV 애니메이션

TV를 가끔 보는 독자들이라면, 2D 만화 같지 않은 정교한 3D 그래픽의 애니메이션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번에 대상 수상작인 레카는 이미 EBS TV를 통해 많은 꼬마 시청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3D 애니메이션이다.

드림픽처스21(www.dreampictures21.com)은 레카를 1998년도에 기획해 총 26부작 TV 시리즈로 만들어 방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는 꼬마 시청자들의 레카에 대한 의견이 종일 게시판에 올라오고 있다.

수출은 이미 10개국과 계약한 상태이며, 30개국과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상태다. 수출은 올해 총 160만 달러로 잡고 있으나, 김일권 대표는 그 이상의 수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레카는 TV용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DVD 타이틀, 게임으로도 선보인다. 패키지 게임은 이미 워저드와 계약했고, 온라인 게임은 현재 모 업체와 계약을 성사시켜 가는 중이다. 후속작인 레카 II는 10월에 진행할 예정이다. 레카 II는 TV 방송뿐 아니라 게임, 홈페이지를 통한 광고, 음반도 발매할 예정이며 캐릭터 완구와 함께 발매할 예정이다.

드림픽처스21의 김일권 대표는 국내 애니메이션 업계에 대해 작품화 과정이 미숙하고 전문 PD 인력이 거의 없다는 것을 어려움으로 꼽는다. 외부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왜곡된 코스닥 열풍으로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협력업체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미 드림픽처스21은 어엿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김일권 대표는 기획력이 어떠했느냐에 따라 마케팅의 성공여부가 결정될 정도로 기획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PC 애니메이션 제작기술은 이미 우리나라가 최고의 자리에 있다. 하지만 그림만 그려서는 작품을 만들어 성공하기가 힘들다고 귀띔한다.

김범수/PC라인 기자 (kimbs@pcline.co.kr)



TV를 통해 널리 알려진 레카 캐릭터들



경쟁에서 성공하려면 기획력이 중요하다고 역설하는 드림픽처스21의 김일권 대표

dreampictures21